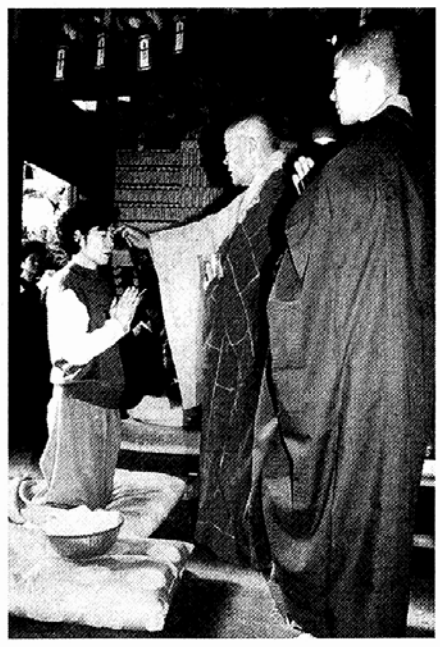
관정스님은?

허운 화상의 전법 제자

미국 오가며 정토선 현창



관정 스님은 1924년 7월 7일 중국 북건성 보전현 성광진 동대로에서 출생했다. 속성은 심(瀋)씨. 태어날 때 서쪽하늘이 금빛으로 빛나고 대지가 황금빛을 발했다 하여 이름을 금영(金榮)이라 했다. 일곱 살 때 북건성 교충사(敎忠寺)로 출가했고 15세에 허운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17세에는 광동성 남화사에서 구족계를 받았고 17세에 운고산에서 허운스님으로부터 정법안장을 계승하여 전법제자가 되었다. 1967년부터 6년 반 동안 선정에 들어 서방정토를 참관했다. 1982년부터 미국에 가서 불교 포교에 매진해 북미불교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미국등을 오가며 정토선을 현창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에 스승 허운화상이 창건했던 절들을 다시 중건하는 불사에 전력하고 있다.



◇관정스님은 신도들에게 수기를 내리며 일심염불 수행을 당부했다.

소리를 관하면서 좌선 수행을 하여 무념의 경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관정 스님은 바로 그 무념의 경계에 이르면 스스로에게 법신이 출현하여 시방법계에 자유자재로 노닐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즉, "화두선은 무념으로 이루는 것이고 정토선은 일념으로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 관정 스님의 정토선에 대한 요약이다.

26일 영취사에 도착한 관정 스님은 27일 오후부터 28일 오전까지는 주로 찾아 온 신도들에게 수기를 내렸다.

6년여 선정들어

"수기를 내리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라는 독려이자 정토선을 부지런히 닦아 반드시 성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수기를 받고나면 수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굳어집니다. 부지런히 닦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가 없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맴도는 염불을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염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마음속에 울리는 염불을 관하며 자성을 개오해야 하고 자성을 밝게 열어 서방정토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관정스님은 28일 오후2시 영취사 신도 100여명의 앞에서 법문을 할 때 무조건 정토선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먼저 인연과보의 질서를 의심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5계를 철저히 지켜 삶의 환경을 정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이르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이지만 이 세계에 살아있는 이 순간의 수행이란 자신의 몸을 가지런히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선량하게 맺는 것 즉, 인연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토선도 무르익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을 가려고 할 때 배를 타는 방법도 있고 비행기를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를 타면 늦게 가지만 비행기를 타면 빨리 갑니다. 나는 정토선이 성불로 이르는 빠른 길이란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법회가 끝나고 관정스님과 간단한 문답을 나눌 시간이 주어졌다.

-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이후 세계는 전쟁의 혼란속에서 엄청난 테러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테러전쟁의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이 테러를 당한 그 장면은 목불인견(目不忍見),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나는 테러를 자행한 사람이 세계인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테러를 당한 미국이 용서를 하는

> **몸을 가지런히 하고 인연관계 소중히 여기고 계율지키는 게 기본**

큰마음을 보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결국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란 바로 사죄와 용서로 인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는 여러 종교가 병존하고 있고 세계도 종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간의 화합은 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있지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종교는 인류에 있어 중요한 현실입니다. 종교를 바탕으로 하여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숭고한 일입니다. 종교는 평화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 종교는 중요합니다. 평화를 가르치는 종교가 자기 종교를 위해 평화롭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게 마련입니다. 천지만물이 다 나고 죽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죽음은 천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끝이라고 보는데서 슬픔이 있습니다만, 불교인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광영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토선을 열심히 닦으라는 것은 바로 염불삼매의 선정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스승 허운화상께서 절 짓는 불사를 많이 했고 스님께서는 문화혁명으로 파괴 된 그 절들을 다시 복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사의 공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13개의 절을 지었습니다. 절을 짓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얻는 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덕과 복덕이 불사를 통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덕으로 중생들은 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것이 불사의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사를 많이 하는 것이 좋고 누군가의 발원으로 이루어지는 불사에 많이 동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한국의 불자들이 시주한 재원으로 복건성 섬유현에 맥사암사(麥斜巖寺)란 이름의 절을 지었습니다. 한국식 사찰을 지었고 한국어로 현판을 달았습니다. 한국불자들이 베풀어 준 좋은 인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가피를 입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중국 절에는 없는 사천왕상을 모시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사람의 육신을 가아(假我)라 하여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스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신각(身覺)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서방정토 분명히 있어요"

"사람은 몸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몸을 한날 구린내 나는 피주머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몸의 속에서 수행의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신체가 바로 진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몸을 여의지 않고 깨달음에 드는 것이 신각입니다. 신각은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물각(身物覺)인데 세상의 모든 사물들과 사람의 몸도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물질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상계의 물질들이 어디서 나고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것이 신물각입니다. 다음은 신신각(身神覺)이니 영계의 현상들에 집착하여 허망된 것을 좇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이 안 된 사람은 심령상에 집착하여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공을 더 수련하여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을 타파해 삼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은 신성각(身性覺)입니다. 삼계 밖으로 나아가 온 허공, 온 법계, 온 불국토를 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경지입니다. 신각이란 몸 안으로부터 수행을 익혀서 몸 안에서 불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관정스님은 영취사에서 법회를 마친 뒷날 지방의 스님들과 법담을 나누고자 영월로 향했다. 올라가는 산길 4시간 내려오는 산길 3시간 반을 거뜬히 여기는 노스님의 법력이 놀라울 뿐이다.

임연태 뉴미디어부장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지홍 스님



병이 든다는 것, 나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말하기보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본다. 사람들은 병이 들면 비탄에 잠겨 남은 인생을 눈물로 살아가기도 하고, 병마와 싸우며 병들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기도 한다. 아니면 병과 함께 남은 삶을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하게 된다. 그 외로운 길의 도반이 되어 고통과 슬픔을 십년동안 함께 해오고 있는 내 자랑스런 도반이 있다.

지홍(智弘) 스님. 우리들이 학교졸업하던 해에 배시시 웃으며 서울중앙병원 안에 법당이 생겨서 지도법사로 봉사하러 간다고 하더니 벌써 중앙병원 지도법사로 지낸지 십년째다. 그렇게 오래하게 될 줄 본인도 몰랐다고 하지만 우리도 새삼 놀라고 있다. 사실 병자를 매일 만난다는 것은 어지간한 자비심으론 어림도 없는 일이건만 스님은 삶과 죽음이 다반사인 그 곳에서 어떤 깨달음을 찾는지 흔들림 없이 그 자릴 지키고 있다. 십년이 되도록 난 그 병원엘 못 갔다. 어쩌면 내가 병고에 시달렸던 세월이어서 더 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얼마 전에 스님이 우리 절에 왔다가 두루마기

> **10년째 병원법당 지도법사**
>
> **병자의 고통과 비탄 '함께'**

를 놓고 가는 바람에 두루마기를 돌려준다는 구실을 내세워 병원법당으로 스님을 만나러 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모퉁이를 돌자 '약사여래불' 독경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병원의 환자들이 이 소리를 들으며 부처님을 찾아오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법당을 찾은 이들의 병고를 부처님이 다 거두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다. 법당은 아주 작았다. 열 서너평쯤 될까 싶은데 아주 아늑한 곳이었다. 막 환자의 가족인 듯한 청년이 상담을 마치고 지홍 스님께 합장하고 법당을 나갔다.

"와! 좋다. 이 병원법당은 다른 병원이랑 좀 다르네! 여기서 지내니 좋누?"

"스님아. 좋은 게 다 뭐고? 내 얼마나 바쁜 줄 아나? 말마래이. 여기 있다보면 금방 하루가 가버려. 좋고 나쁘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지. 삶과 죽음이 좌악 흘러간다 아이가! 여기가 내 공부터지 뭐. 환자와 그 가족 몸에 묻은 고통과 슬픔을 기도와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 털어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쏟는 정성은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아니면 어려워. 모두들 신심을 다해 정성껏 하니나 또한 함께 하는 거지. 요즘엔 뇌사판정위원이어서 새벽에도 호출이 오면 병원에 나와야 해."

"봉사하는 삶이 힘들겠지만 내 보기엔 좋다. 스님이 애쓰는 것도 좋고 이 큰 병원에 법당있어 좋고 그렇네?" 짧은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영안실에서 전화가 왔다. 스님은 영안실 염불은 못 간다고 했다. 영안실 시다림 염불은 불자들이 다니는 절의 스님들이 오셔서 하도록 주선했다. 스님은 법당에서 기도와 상담을 하고 병실로 환자 방문하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이란다. 마침 운문사 강주스님께서 문상을 오셔서 인사드리러 간다기에 따라 나섰다. 강주스님은 지홍스님이 마냥 대견한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문상을 마치고 커다란 병원로비를 지날 때 지홍스님이 나를 보며 말했다. "이곳에 하루에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왔다가 흘러나가지. 두려움과 슬픔, 희망의 마음으로 말이야. 머무는 법이 없어. 모두가 흘러가."

법당에 돌아오니 온 몸이 까맣게 타버린 듯한 청년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간이식수술 후유증이란다. 그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얼마 전에 영안실에 그대 이름이 있어 깜짝 놀라 한달음에 달려가 보니 영정사진이 노인이어서 참말로 다행이었다며 반가워하자 청년은 부끄러움과 고마움에 연신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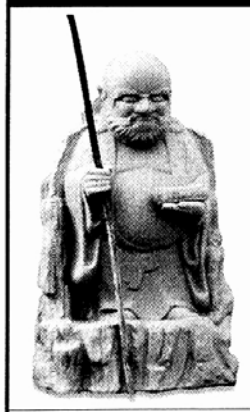


께 합장을 한다. 그 모습에 가슴이 저려왔다.

'사자를 가르쳐 연꽃 피우게 하고/새벽종 울리어 거친 바다 재워서/우주를 지키는 우리 영원한 목숨/진리에 하늘에 길이 비치게 하리/중생의 설움은 우리네 설움이요/중생의 고난은 우리네 고난이니/우리는 언제나 맑고 맑게 도웁고/어디서나 우리는 밝게 고쳐내리라/이 세상 승가에 모든 길은/우리들의 승가대학에서'

돌아오는 차안에서 나는 오랜만에 교가를 소리높여 불러봤다. 학교 다닐 땐 느껴보지 못했던 가사의 엄숙함과 지홍스님의 사는 모습에 스스로 감동해서 목젖이 뻣뻣해졌다. 매일 환자들과 함께 108배를 하고, 병실을 돌며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병원의 임상연구가 윤리적으로 옳은 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뇌사판정에 대한 마지막 검증을 하기 위해 온 몸을 던져 봉사하고 있는 지홍 스님. 우리들이 4년간 불렀던, 서정주님이 지으셨던 그 교가 가사처럼 스님은 병고의 거친 바닷 속에 피어난 한 떨기 연꽃이 되어 병자의 설움과 고난을 함께 하며 세상을 밝힐 등불로 빛나고 있다. ▨반야사 주지

건강의천연가습황토달마



우주 달마의 기(氣)
자연 황토의 기(氣)
마음 정성의 기(氣)

성수로 달마의 전신을 적시면서 기도로서 합쳐졌을때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하여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주는 황토로 빚은 달마입니다.

(실물크기 300×200×150)

이런분께 권합니다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
◆마음먹은 일이 잘 안되는 분
◆나쁜꿈에 시달리는 분
◆이유없이 시름시름 아픈 분
◆부부 정이 멀어지는 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경로 달마의 신통력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금강토굴 호경 김휘철 합장

생일선물 개업선물 집들이선물 효도선물

◆수맥과 전자파 차단은 황토달마가 해결합니다
◆실내의 습도조절은 황토달마가 해결합니다
◆각종세균 및 공기정화를 황토달마가 해결합니다
◆세멘트 건물의 독성분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인체의 면역성을 키워주는 황토달마 입니다
◆황토 달마를 곁에 두시면 정신의 건강 육체의 건강 생활의 건강 자연의 기(氣)를 송축시켜 줍니다

대구·경북 보급본부(딜러 및 대리점문의) 080-5858-080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버들강아지 잎망울 틔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위치안내 < 1호선 영등포역 하차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입구 직진 200m정도에 오면 우측으로 파란색 간판 레스토랑(마음과마음)을 약간 지나 맞은편 좌측 골목 항림 빌딩 2층 204호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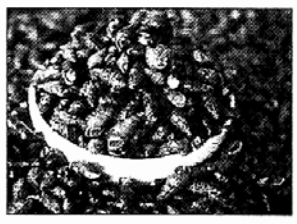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전화: 02) 679-5902
H·P: 011) 288-2944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농축액!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같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목초액수액시트

"발바닥에 붙여 몸속 독을 빼는 배독요법"
일본 화제의 상품!!

효과 없을 시 환불!



◆판매가
30매 44,000원/국산
60매 85,000원/국산
50,000원/30매 일본산
99,000원/60매

▶ 발과 불편한(목, 어깨, 허리, 팔, 무릎등)부위에 사용 경제적으로 합니다.
▶ 자고나면 몸속 노폐물이 누렇게변한 것을 직접 확인
▶ 발에 붙여서 상쾌하고 쾌적하게 하여 주는 건강상품
▶ 일본 이트 상품 / 국내 인기 상품

인터넷 : www.gaja.tv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께 효도선물
몸이 붓고 손발이 차고 저린 분, 피로하신 분, 종일 서서 일하는 분 (매장근무), 산후조리, 운동 선수 / 항상 피곤한 분, 각종 사고 후

가자목초
(02) 5454-010
농협 063-02-124288 이수열

※모 집※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 딜러